

의미 분석

이 건 현

서울대학교 철학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우 : 151-742

glee @ plaza.snu.ac.kr

Meaning Analysis

Gun-Won Lee

Department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약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경우에 성(性)이, 이(理)와 명(命)으로 나타난 것이 같다. 진리 (aletheia)가, 언어(logos)와 운명(moira)으로 나타난 것들이 일치하는 것이 성공적인 언화행 위가 된다. 측정대상(melos)과 본체(ousia)가 구분되는 것은 언어와 운명의 괴리가 있을 수 가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언어처리의 지식기반을 측정대상에 한정한다.

(1) 철학의 시작은 더 옳은 언어표현의 정의(definition)로 이전의 잘못 사용된 언어처리를 대체시키는 것으로 소크라테스는 보았다. [R. Crossman]

(2) 잘못을 지적하는 등예(Tabanidae)의 역할과 옳은 지식의 상기를 돕는 산파법 (maieutics)이 소크라테스의 의미분석의 방법이다. [R. Crossman]

(3) 언어를 통하여 진리를 추구한다는 입장(via language)에서 한 언어표현이 그 진리의 운명으로 나타남과 어긋날 때, 운명을 택하는 것은 조화 보다 더 안정의 우위를 인정하는 논리적인 입장으로 합리성 보다 실용(pragma)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W. Quine]

(4) 공동체의 공통규범의 추구는 그 언어 속의 공통의 형식 또는 범칙의 추구에 기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에서 그 언어사용은 그 기저의 범칙(underlying rule)에 개입한다는 입장에 기초한다. [J. Searle]

(5) 진리의 언어표현과 운명적인 사태들 사이의 괴리를 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언어표 현의 대상(The Young Tableaux)과 실제(The continuum)의 구분을 수용한다. [AMS(2000)] 언어표현의 대상은 나타난 것(顯)이고 실제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다. [伊川, 明道]

(6) 이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에 간격이 없다는 것(顯微無間)은 그 의사소통이 성 공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언어의 표현완전성(functional completeness)은 언 화행위가 성공적이라는 것이다. [J. Searle]

(7) 수로 쓰인 것(象數)과 시로 쓰인 것(義理)이 하나인 것은 그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 은 것들 사이에 어떠한 틈도 없음을 말한다. [成中英]

(8) 공통의 규범의 공통성 속에 규범적인 측면이 벌써 있다. 공통성에서 개인적이 아닌 공 적인 규범으로의 전이는 규범, 가치, 규칙, 과정, 제도로의 전이라고 본다. [C. Morrison]

(9) 우리의 언어사용에 신비적인 요소를 부인할 수가 없다. 넓은 의미의 발화 의미 (utterance meaning) 속에 신비적인 요소나 애정표시도 수용된다.

의미분석은 지금 한글을 연구하고, 그 결과에 의존하여서 우리의 실제의 생활에 사용하는 『한국어사전』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에서 실패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결과에 의존하여서 수행되는 철학적인 작업이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철학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분석의 문제를 반성하여 본다.

1

철학의 시작에서의 의미분석의 사용은 먼저 옳은 정의(definition)를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형이상학』에서 소크라테스는 보편적인 정의(universal definition)를 시도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그러한 시도와 플라톤의 추상적인 정의는 다른 모습이라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의 관찰에 의한 정의와 추상적인 정의의 차이는 그것이 일인칭의 기술인가 아니면 제삼자인 삼인칭으로 그들의 정의와 구분하여서 고찰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우리가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였듯이 그 보편적인 정의를 하는데 참으로 성공하였다면, 일인칭과 삼인칭의 차이의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에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완성되었고, 소크라테스의 문제는 그의 철학이 완성되지 못하였던 철학이었다는 Crossman의 평가도 설득적이라고 본다. 소크라테스가 비극적인 종말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러한 그의 철학의 미완성도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 Crossman은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분석이 철학의 완성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서처럼, 철학이 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우리는 수긍하여야 한다. 그러나 바른 정의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꼭 거쳐야만 하는 철학의 시작이라고 말하고자 한다.

이제 소크라테스에서의 논리(elenchus)라고 말하여지기도 하는 원초적인 대표적인 언어분석의 경우를 반성하여 본다.

2

소크라테스가 대화하는 도중에 대화의 상대의 잘못된 언어사용을 한마디의 반증으로 논박하는 모습을 등에(gadfly)로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이라고 말하여졌었고, 누차 그는 그의 이러한 언어분석의 사용은 대화상대자들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러한 회고는 물론 그가 재판을 받을 때 더욱 절실하게 반성되었었다고 Crossman은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어린이들에게 기하학(geometry)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논리의 연구는 옳은 지식의 상기를 돕는 산파법(midwifery)으로 이름하여져서 알려져왔었다. 이 등애로의 소크라테스와 산파로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이 합하여서 그의 언어분석의 방법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이 지금의 언어 및 논리철학의 뿌리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동안에 그 이전에 기초하는 언어과학의 연구의 성과와 수학적 연구의 성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언어분석의 실제의 사용이 지금과 같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에서부터 그의 논리 및 수학은 모두 언어 속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의미분석의 문제 중에서 그가 위의 등애와 산파로의 모습들 이외에 피타고라스의 수학을 사회 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심한 거부반응을 불러들인 것으로 Crossman은 지적하고 있다. 수학을 사회과학에 적용하려는 소크라테스의 시도는 완전한 합리적인 또는 과학적인 방식의 모든 우리의 삶에의 적용으로 말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Crossman이 지적한대로 그의 비극적인 종말의 한 원인이었다면, 그 문제를 다시 현대적인 관점에서 반성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논리학의 입장을 보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Quine의 우리가 실용주의적인 논리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을 본다.

3

모든 문제들을 순수하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로 처리하고자 하는 시도는 합리성의 추구라고 말하여질 수가 있다. Quine은 이 합리성의 추구와 실용의 문제에서 그의 합리적인 실용주의(pragmatism)적인 입장을 천명하였다. 우리가 위의 소크라테스의 의도처럼 합리성(the rational)의 추구에 한계를 설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합리성의 추구는 합리성을 위한 합리성의 추구가 된다. 이러한 합리성을 위한 합리성의 추구는 우아함(elegance)을 추구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 이 우아함은 논리적으로 그 이론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주고, 그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면, 적어도 원칙적으로 그 이론이 실제로 실현될 수가 있는 가능성으로의 모형(model)을 가질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논리적인 일관성의 추구는 그 이론의 整合論(coherence theory)에 의한 진리를 확보하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정의는 위의 원초적인 소크라테스의 정의와 구분하여 이론적인 정의(theoretical definition)라고 이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확보된 정합론적인 진리가 가지는 한계는 그러한 이론 전체가 우리에게 만족스럽게 실현되느냐는 문제이고 이러한 고려는 그러한 이론의 對應論(correspondence theory)에 의한 진리의 확보의 문제이다. 이러한 진리는 실제의 실현과 결부되는 그러한 이론의 선택 즉 그러한 가정의 수용의 문제인 안정(stability)의 문제가 된다. 이러한 이론의 안정이 확보되어야 위의 일관성에 의한 그 이론의 조화(harmony)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여 줄 수가 있다. 이것을 Quine은 실용(pragma)으로 이름하였다. 그래서 실용은 위의 합리성과 상충할 때 우위에 선다고 하여서 Quine은 실용주의적인 논리학자로 분류하는 것이 미국의 철학자들의 판단이다. 이론으로 나타난 것을 언어(logos)라고 한다면, 그 이론의 전체적인 만족의 적도를 운명(moira)으로 나타난 진리의 측면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Quine의 실용주의적인 논리학은 진리가 언어와 운명으로 나타난 것을 받아들이고 언어와 운명

이 상충할 때에 운명을 택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실용주의적인 논리학이 미국적인 실용주의의 전통과 부합되는 철학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언어의 처리까지 포함하여, 이 의미분석의 모습을 보고자 한다. 이 분야는 영국의 전통을 많이 따르는 Searle의 경우를 따라서 우리가 그의 내재적인 실재론(innate realism)이라고 이름하는 입장을 본다.

4

일상언어학과(Oxford Ordinary Language School)로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언어철학은 Searle에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기저의 법칙에 개입하는 것으로 말하여지고 있다. 그 기저의 법칙(underlying rule)들과 실제의 일상의 언어사용에서의 뜻들에서 보는 의미의 구조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언어의 사용자체를 어떠한 법칙에 따르는 행위유형 속에 개입하는(commit) 것으로 Searle은 진술하고 있다. 그래서 기저의 법칙의 존재를 인정하는 Searle의 입장이 그의 철학을 내재실재론으로 분류하도록 한다고 본다. 그래서 일상언어학과는 언어를 통한 공통의 규범 또는 진리를 추구하는 입장(via language)의 정당성과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본인이 고전적인 길이라고 이름한 방향으로 말할 수가 있다. 본인은 고전적인 길은 예로 플라톤이 경험한 펠로폰네소스 전쟁과 같은 참변이 아닌 합리적이고 지성적인 개혁(rational and moral reform)의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Shorey가 말하는 「국가」의 철학적인 방향이라고 본다. 이러한 언어를 통한다는 입장이 고전의 길이고 이러한 방식의 대화(dialogue)를 그 주된 방법으로 택하는 특성이 이 언어철학의 길이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예로 공통의 규범의 추구를 형이상학적인 초월적인 존재에 의존하지 않고 언어사용의 현상에서 직접 도출할 수가 있다는 도덕적인

언어에 대한 입장을 말한 Hare의 방법이 그 특성을 잘 말하여 준다고 본다. 내가 대학로의 오토 가는 차량을 보고, 나는 다른 어떠한 추론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체로 교통질서의 필요를 말하는 것을 수용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village green)에서 대화가 요구하는 공통의 규범, 즉 위의 예로 대학로의 교통질서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그 가능성을 수용하는 입장이 된다. 이러한 대화를 위주로 하는 고전의 길에서 의미분석에는 그 언어사용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성공의 기준이 문제가 된다. 먼저 언어는 그들의 의도된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표현완전성을 Searle은 수용하고 있다. 그는 자연언어 사용의 논리적인 구조가 모두 공식화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결부되는 체계적인 지식기반의 언어표현의 문제를 본다.

5

위에서 진리의 언어표현과 운명적인 나타남이 구분되는 것은 의미분석에서 언어표현이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언어표현의 대상(melos)은 본체(ousia)와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식기반의 체계적인 언어처리는 그 지식기반이 분별된 표본공간(sample space)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그 언어처리는 본인이 논리적인 표현이라고 이름하였었다. 이 논리적인 언어표현은 예로 분별된 유한의 표본공간(discrete sample space, The Young Tableaux)으로 그 수학적인 특성을 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측정대상은 대수적으로 언어표현(group representation)될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대수적인 언어표현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의 세계는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은 대상들의 연속체(The continuum)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대수적인 언어표현의 대상에 나타나지(顯) 않은 것들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공적인 언화행위에는 어느

언어에나 있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현완전성의 문제를 반성하여 볼 수가 있다. 다음에 Searle의 표현완전성의 문제를 특히 규범적인 측면으로 반성하여 보고자 한다.

6

우리는 이 표현완전성은 그 언화행위(speech acts)가 성공적인 경우에만이 말하여질 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예로 Searle의 경우에는 그 언화행위가 (1) 명제내용이 있고, (2) 명제태도가 있고, (3) 예비적인 조건이 충족되고, (4) 성실성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충족되어 있는 경우는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뜻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듣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는 의미의 성공적인 언화행위로 분류되었다. 우리의 모든 언어사용이 성공적이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면, 이러한 표현완전성에 있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소를 부인할 수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본인은 그 언어의 표현 완전성은 언화행위가 성공적인 것이라고 그의 『언화행위』에서 말하고 있다고 보고자 한다. 다음에 이와 깊이 연관되고 적어도 좋게 포괄적으로 말하려고 한다면 같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유학의 전통에서의 成中英의 수로 쓰인 것과 시로 쓰인 것의 문제를 다음에 보고자 한다.

7

위의 대수학적인 언어표현에서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微)의 문제는 신유학(朱子學 Neo-Confucianism)에서 그들 사이에 어떠한 틈도 없다는 명제(顯微無間)로 나타나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택한 伊川과 明道를 계승한 朱熹의 학문은 易學에서 無極이 곧 太極이라고 설명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전통은 언어표현이 그 성능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위의 언어의 표현완전성의 명제를 수용하게 하였다. 그래서 표현완전성까지 들어 있는 신유학은 매우 강력한 언어이론이 되고, 이러한 언어관은 우리의

언어사용이 그러하여야만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 지금의 易學史의 연구는 이러한 측면을 규범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는 것까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成교수의 통계로 나타난 것과 시로 쓰인 것이 하나라고 하는 명제(象數義理 同源一體)는 내가 여기에서 말하는 식의 언어과학의 연구방법이나 전산학 논문 예로 양단희의 세 개의 그림이나 수식이 같아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한문자전』의 경우에 그 글자의 형성을 획수로 검증하여서 찾는 것에서처럼 수로 나타내는 것과 詩로 나타내는 것이 하나이어야 한다는 것도 같이 언화행위가 성공적인 경우를 말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成교수의 명제는 특히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그 예를 찾아 볼 수가 있어서 그 문제의 특성을 잘 말하여 준다. 다음에 공동체의 구상의 경우에 개입되는 언어의 문제를 Morrison의 아시아 및 태평양 공동체 구상의 실례에서 반성하여 보고자 한다.

8

먼저 말한 마을 공동체의 대화의 광장(village green)의 경우에 그 성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대화에서의 공동의 규범의 형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전통은 고전의 길 쪽이라고 본인이 말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대화가 있으나 언어에 의존하는 역사적으로 약하였던 방식이고, 많은 철학자들이 요즈음 “조심스럽게 지켜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다. 지난 20세기를 우리가 특히 올해가 2000년이라는 이유로 반성하여 보면, 이 대화의 방법은 거듭 실패하였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고전의 길, 즉 합리적이며 지적인 개혁의 길을 택하는 것은 차라리 그 참상들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는 측면을 부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찾은 규범이 가치가되고 규칙으로 성문화되고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제대로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이러

한 규범의 제도화에 대한 비판의 주된 이유들은 부인할 수가 없이 그 당대의 실제의 분쟁에 너무나 무력하였다는 이유라고 말하고자 한다. 예로 소크라테스의 언어표현 속의 규범은 그의 비극적인 최후나 기원전 404년의 아테네의 스파르타에 굴복하는 운명으로 나타난 진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모습들이 그 규범의 제도화에 따르는 비판적인 성찰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서 많은 필자들이 신비적인 언어표현에 의존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Crossman은 플라톤이 종교적으로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로 영혼의 불멸이 전제되지 않은 플라톤의 『국가』가 가능하지 않다는 평도 이러한 Crossman의 평가에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측면이 언어의 신비적인 요소를 반성하게 한다.

9

회랍철학에 있는 『회랍신화』의 배경과 헤브루의 『성경』의 전통의 위치는 부정될 수가 없다고 본다. 成교수의 중국어의 신화(myth)적인 측면의 강조도 같은 방향으로 본다. 그러나 외국어 속의 일반적인 명제의 타당성을 본인이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사용에서 신화적인 요소에 대한 정치학자들의 부정적인 언급을 읽으며, 그 타당성 이전에 그러한 신비스러운 언어사용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자 한다. “운명공동체적인 신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부정적이지만 그러한 요소의 언어 속의 존재는 또 어쩔 수가 없다.

참고문헌

- 박종현 『국가』 서광사 1997
- Crossman *Plato Today* 1973 UK
- East-West Center *Observer*(1998) USA